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응 만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맞손'

전주시보건소 재택치료 관리조직 총 16명으로 확대 개편

재택치료 기간 전담공무원 매칭해 격리 관리·모니터링 등 총력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는 101명이다. 시는 그간 동의에 의해 진행됐던 재택치료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소아, 장애인 등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입원요인이 있는 자 외에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도록 변경된 만큼 앞으로 늘어날 재택치료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보건소 재택치료 관리조직을 △건강관리반(7명) △격리관리반(6명) △자가격리반(3명) 등 총 16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는 남원의료원을, 협력약국으로는 행복한국과 사랑약국을 지정했다.

재택치료는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보호구 등 제공되는 건강관리키트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관리 앱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원의료원과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은 건강관리

앱과 유선상으로 일 2~3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되면 건강관리 앱과 유선으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진행된다. 조제된 처방약이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전북지회의 도움을 받아 약을 수령하게 된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건강관리 앱의 '응급 호출'을 누르거나 24시간 가동되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전북도청으로부터 병상을 배정받은 뒤 119(평일 야간·휴일)와 보건소(평일 주간)를 통한 응급이송이 이뤄진다. 시는 총 5개조의 이송반을 꾸린 상태로,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도 이송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어 대비했다.

재택치료자들은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 치유를 위해서도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상담 요청 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마음치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10일간 관리에 들어가며, 미접종자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

간 종료 후 추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재택치료 동거가족에게는 개인보호구 세트가 지원된다.

일반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7일 치료, 3일 자가격리로 총 10일이다. 다만, 증상 여부와 의료진 판단 하에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재택치료 기간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자가격리보다 엄격한 격리관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 착용 또는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폭증하는 재택치료자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단계·외래진료센터 지정에 대해 대차인병원과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집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4시간 응급상황 및 이송 대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전주시의회·한국수력원자력·태영건설·전북도시가스,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 융복합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주)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전북도시가스(주)(대표이사 김홍식)는 14일 전주시청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메탄)를 활용해 전기 및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시가 한국환경공단 등과 체결한 협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태영건설은 총 1200여 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연료전지 발전 20MW(메가와트) 및 수소생산 600kg/일 규모의 수소 융복합 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와 시의회에서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사업 총괄관리 및 RBC구매를, 태영건설은 EPC(설계, 조달, 시공)를, 전북도시가스는 도시가스(LNG)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주)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전북도시가스(주)(대표이사 김홍식)는 14일 전주시청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급을 담당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융복합 사업 개발 △인·허가 협력 △안전적 바이오가스 생산 및 공급 △사업모델 고도화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성 확보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활용한 추가 사업 발굴 등이다.

시는 국내 최초의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을 통해 수소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 3040' 정책과 정부의 탄소중립 등 그린뉴딜 정책에도 부응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 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가스의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오늘부터 공공시설 운영 중단

전주시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과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문을 닫는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실내·외 공공시설 1700여 곳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71명이 발생하고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약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화산체육관과 안산수영장을 비롯한 실내·외 체육시설 20여 곳과 공영자전거대여소, 동물원, 덕진공원, 자연생태관,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경기전, 전라감영, 팔복예술공장 등이 문을 닫는다.

경로당 638곳과 노인주간보호센터 76곳, 노인복지관 6곳,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3곳, 지역아동센터 69곳, 야호다함께돌봄센터 7곳 등 복지시설 1460여 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전주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잘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2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시는 각 동에 복지전담실을 설치하고 독립된 복지상담실을 마련해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기능을 강화했으며,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코칭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인 '현장 슈퍼바이저'를 운영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동별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권역별 네트워크인 '희망로드'를 가동해 민관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기자

전주만의 로컬푸드 경쟁력 입증

시, 로컬푸드 지수 시상식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인 특별상 수상

도시형 먹거리전략인 전주푸드플랜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주력해온 전주시가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14일 대전ICC호텔에서 열린 '2021 로컬푸드 지수 시상식'에서 분상인 최우수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인 특별상(발전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로컬푸드 지수 평가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가공품 판매 비중 △친환경농업 실천 노력 △학교급식·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 시민교육 △먹거리 거버넌스 등 17개 지표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가 선정된다. 시는 전국 9개 최우수 지자체에 주어지는 A등급을 달성해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지난 해와 비교해 가장 높이 성장했다는 평가 속에 특별상(발전상)을 수상해 전주만의 로컬푸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안전하고 건강한 전주푸드가 지역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전주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형 실행조직인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주푸드 전담부

서인 먹거리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설하는 등 조직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집중해왔다.

여기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와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순환체계 확립에 행정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드라이브 스투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전주김장문화축제를 드라이브 스투와 온라인 방식을 병행 추진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초·중·고생 가정에 배송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한 '2021년 혁신 우수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혁신 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윤상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